

한국전쟁 초기 중국군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양상 연구

吳 正 澤*

1. 서 론
2. 중국의 군사전략과 전술
3. 1차 및 2차 전역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
4. 3차 전역 이후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
5. 결 론

1. 서 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분단과 전쟁, 냉전을 관통한 20세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한국전쟁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은 아직도 굳건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에 위치한 이 전쟁은 현재 우리의 많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UN군과 중국군과의 대결은 현대식 무기와 서구적 사고로 장비된 군대와 전근대식 무기, 일본과는 다

른 동양적 전략사상으로 무장된 군대와의 격돌이었다. 한국전쟁에서 발휘된 신생 중국의 전략과 전술은 스스로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것이었다.¹⁾ 특히 한국전쟁 기간 중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까지의 중국군 초기 5차례의 전역은 미국, 한국을 주축으로 한 UN군과 중국 및 북한 연합군이 가장 대규모의 전투를 벌인 역동적인 기동전(운동전) 시기였다.²⁾ 이 시기 중국군은 UN군에 비해 화력과 군수보급이 열세하였고, 제공권이 전적으로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UN군 전력을 청천강과 임진강에서 붕괴시켰을 뿐 아니라 정치적 장벽인 38도선을 무시하고 계속 남하하여 전선 붕괴의 직전까지 갔다. 그 이후에도 UN군의 점진적인 북진에 대항하여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공세적인 모습을 지속했고, 중국에는 전쟁 전의 원상회복으로 자국 안보의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운동전 시기의 전쟁 수행에 있어서 중국군 군사전략과 전술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화양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 동안의 한국전쟁사 연구에서 간과되었던³⁾ 한국전쟁 참전 이전 중국군의 군사전략과 전술 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중국군의 운동전 시기에 시행된 군사전략과 전술의 내용뿐 아니라 변화양상에 주목하면서 그 적용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전쟁사 연구를 시도해 본다. 그와 동시에 이 논문에서는 중국군의 전쟁 수행의 목적과 수단을 고찰하고, 중국군이 경험에 근거한 군사력 운용으로 패배하지

- 1) 김희상, 「한국전쟁의 전개단계와 그 작전적 특성」, 『한국적 군사발전을 위한 모색』, 전광, 2000, 300쪽.
- 2) 은창일 외, 『군사사상사』, 황금알, 2006, 267쪽. 運動戰이란 陣地戰에 대비되는 機動戰을 의미하지만, 특별한 중장비가 없어 기동이 비교적 수월한 중국군의 조건을 이용하여 보다 더 진퇴의 변화가 활발한 작전 운용을 의미한다.
- 3) 중국군은 전략, 전술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규모 병력 투입에만 의존한 소위 '인해전술(human wave tactics)'로 대표되는 비군사적, 비이성적인 전술운용 방식으로만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돌파와 적 섬멸에 중점을 둔 밀집대형의 파상적 공격전술인 '인해전술'의 정확한 번역어는 '계파식 밀집 돌격전술'이나 '인파전술'이 합당하다.

* 공군사관학교 군사연구실 연구원

않는 전쟁을 하면서 나름의 전쟁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분석틀로 전쟁의 본질을 규명한 클라우제비츠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개념을 따르면서 『전쟁론』 2권 ‘전쟁이론’에 기술된 전쟁의 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중국군 지휘부는 운동전 시기에 전쟁 목적과 수단의 조화를 추구하였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목적과 수단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규명한다.

2. 중국의 군사전략과 전술

현대 중국을 포함한 지역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독립성이 강하며 근대화 이전에는 수준 높은 자기 완결적인 문명을 형성한 곳이었지만, 서구의 압도적인 근대화 에 이은 서세동점의 조류에 중국은 맥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공산당이 점차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유격대 지도자로 마오쩌둥이 부각되었다. 마오쩌둥의 공산주의가 소련의 방식과는 다른 중국식 공산주의였던 것처럼 마오쩌둥의 군사적 사고도 중국식이 었다. 그가 유격전 전술로 제시한 ‘16자 전법’⁴⁾은 철저하게 『손자병법』을 원용한 결과물이었다.⁵⁾

홍군은 1930년 5월 ‘홍군 대표회의’ 이후 개편을 단행하고 정규군으로 끌어올려 운동전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하였다.⁶⁾ 5차례의 국민당군에 의한 홍군 토벌과정에서 마오쩌둥이 제시한 현실적인 방안은 ‘誘敵深入’의 방법론으로, 몇 번의 실패 끝에 결과적으로 그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된다. 이후

4) 16자 전법은 적이 진격하면 우리는 퇴각하고(敵進我退), 적이 주둔하면 교란하고(敵駐我擾), 적이 피로하면 공격하고(敵疲我打), 적이 퇴각하면 추격한다(敵退我追).
5) 온창일 외, 앞의 책, 2006, 259쪽.
6) 국방군사연구소, 『중공군의 전략전술 변천사』, 1996, 64~65쪽.

홍군 전략의 기본원칙은 적극방어로 결정되었다. 적극방어는 공세적 방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는 방어를 취하되 전역이나 전투는 공격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전술원칙은 홍군이 처한 상황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혁명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병력과 장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였고,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그들만의 생존방식이었다.

중국 공산세력은 1934년 10월부터 국민당군의 공격을 회피하여 ‘대장정’을 감행하게 되고, 1935년 ‘준의(遵義) 회의’를 통해 마오쩌둥이 전체 당과 군에 걸쳐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장정에 이은 연안(延安) 시절에는 마오쩌둥의 철학, 정치, 군사사상의 기본적 틀이 완성되었다.⁷⁾ 그는

<표 1> 적극방어의 전략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원칙

구 분	주요 내용	기본원칙
유적심입	우세한 적군의 공격에 대해 실력을 보존하여 상대를 섬멸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성 있게 전략적 퇴각 실시	전력 보존
병력집중	우세함으로 열세함을, 다수로서 소수를, 각개 섬멸을 추구 “전략은 ‘1로 10’을 상대, 전술은 ‘10으로 1’을 상대”	병력운용 법칙
섬멸전	적군 섬멸이 작전의 기본목적이며 가장 큰 목표 “상대의 10개 사단을 격파하는 것보다 1개 사단을 섬멸시키는 것이 보다 좋은 것”	상대의 인적 역량 소멸
속결전	전략상 지구전을 구사하지만, 전역이나 전투시 속결전을 추구	보급부족 극복, 적 증원방지
기동전 (운동전)	공격하여 이길 수 있으면 공격, 이길 수 없으면 이탈	전장 주도권 장악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편, 『중공군의 전략전술 변천사』, 1996, 101~104쪽.

7) 온창일 외, 앞의 책, 2006, 259쪽.

고대 역사서를 정독하면서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중문 번역판을 여러 간부들과 함께 읽었고, 군사전략 및 유격전쟁에 관한 논의를 다룬 내용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군사이론 발전에 있어 마오쩌둥의 중요한 기여는 물질적, 정신적 소모전과 그 수단으로써 유격전을 통해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⁸⁾ 무엇보다도 마오쩌둥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만들어낸 정치적, 군사적 전략 개념과 작전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⁹⁾

1937년 4월 역사적인 2차 국공합작이 단행되었을 때, 마오쩌둥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근거지인 소비에트 지역에서 기반을 이미 마련하고 있었다.¹⁰⁾ 마오쩌둥 전략사상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전론’은 적극방어 전략을 발전시켜 1938년 5월 발표되었다. 그는 일본의 막강한 군세만 주목하는 패배주의인 ‘亡國論’과 막연한 기대에 의한 주관주의인 ‘速勝論’이 잘못된 것이며 승리를 위한 유일한 전략은 ‘持久戰’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¹⁾

<표 2> 지구전 전략의 3단계론

단계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1단계	전략적 방어	적 : 전략적 공격, 우리 : 전략적 방어 시기	주 : 운동전 보조 : 유격·진지전
2단계	전략적 대처	적 : 전략적 수비, 우리 : 반격 준비 시기	주 : 유격전 보조 : 운동전
3단계	전략적 공세	우리 : 전략적 반격, 적 : 전략적 퇴각 시기	운동·진지전 중요 유격전 배합

출처 : 김정계·허창무 공역, 『모택동의 군사전략』 중문, 1994, 199~204쪽.

8) 온창일 외, 앞의 책, 2006, 286쪽.

9) 온창일 외, 앞의 책, 2006, 288쪽.

10) 존 킹 페어뱅크, 중국사연구회 역, 『신중국사』, 까치, 1994, 406쪽.

11) 온창일 외, 앞의 책, 2006, 271쪽.

그는 이러한 판단 하에 다음 <표 2>와 같은 지구전의 3단계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2단계가 ‘중국이 겪어야 할 심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마오쩌둥은 유격전, 진지전, 운동전을 상호간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하나를 먼저 내세우고 나머지 것을 서로 배합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였다.

지구전론에 이어서 마오쩌둥은 크지만 약한 나라인 중국이 항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격전쟁 문제를 전략적 견지에서 실천적인 전략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항일 유격전쟁의 전략문제’(1938년 11월)를 발표하였다. 지구전 전략과 적극적인 유격전술에 기반한 홍군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1940년대 중반 급속도로 병력이 증가하여 130만 명에 이르렀고, 19개의 대규모 유격 근거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오쩌둥의 예상은 적중하여 일본은 힘을 잃어갔으며, 마침내 1945년부터는 전략적 공세 단계로 전환하였다.

국공내전 시기의 전략과 전술 운용 측면을 살펴보면 마오쩌둥은 정치적으로는 우세하였으나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력 훈련에 주력하면서 국민당군을 방해하여 동북(滿洲) 지역을 장악하려 하였다. 양 세력은 1946년 7월 이후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하였다. 역설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군은 과거 일본군과 같이 도시를 장악하는데 주력한 반면에, 홍군은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고 토지개혁을 통해 광범위한 농민의 지지를 얻게 된다. 홍군은 농촌을 최대로 동원하여 동북 지역을 차지했다. 1949년 초에는 전세가 공산당 측으로 기울어 화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북에서 남으로 국민당군을 몰아내었다.

중국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제정된 ‘3대기율 8항주의’¹²⁾는 기존 유격대

12) 3대 기율은 ① 모든 행동은 지휘에 따른다. ② 군중으로부터 바늘 하나 실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다. ③ 모든 노획품은 공으로 돌린다.
8항 주의는 ① 말은 친절하게 할 것. ② 매매는 공평하게 할 것. ③ 빌린 물건을 반드시 돌려줄 것. ④ 파손된 물건은 반드시 배상해 줄 것. ⑤ 사람을 욕하거나 때리지 말 것. ⑥ 농가를 훼손하지 말 것. ⑦ 부녀를 희롱하지 말 것. ⑧ 포로를 학대하지 말 것.

혁명기울과 주의사항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선포되었다. 이것은 홍군의 엄격한 행동 지침으로 인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뿐 아니라 국민당군과 대비되어 군사적·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¹³⁾ 마오쩌둥이 제시한 人民戰爭論과 전쟁관은 전선의 투쟁을 정치, 경제, 문화, 사상전선의 투쟁과 상호 결합시킨 총체전쟁의 개념이었다.¹⁴⁾ 마오쩌둥은 1946년 홍군을 '인민해방군'으로 개칭하면서 그 이듬해에는 전쟁 경험을 망라하여 '10대 군사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현대 중국의 혁명전쟁 승리를 위한 전략의 총괄임과 동시에 군사사의 특수성을 일반성으로까지 상승시키는 철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¹⁵⁾ 이 작전원칙은 국공내전 기간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중국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종합한 내용으로 유격전에서 얻은 경험이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정규군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¹⁶⁾ 중국군의 10대 군사원칙의 핵심 교리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마오쩌둥의 혁명전쟁 전략에서 확인되는 특징과 의미로는 첫째, 결전은 회피할 수 있고, 둘째, 적 공격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결전에 임하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할 수 있으며, 셋째, 적 병력을 중심으로 결전을 감행해야 하고, 넷째, 방어시 공간양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약자의 승리라는 전략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¹⁷⁾ 중국 세력에 대한 소련 스탈린의

13) 인민해방군은 원칙에 어긋나는 군인들에 대해 매우 가혹한 처벌을 집행하여 행동 지침화 하였으나, 국민당군은 기율 이완과 약탈행동을 보여 내전기간 중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다.
 14) 백기인, 「마오쩌둥의 유격전이론 형성과 전개」, 『전사』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77쪽.
 15) 리쩌하우, 김형중 역, 『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284~287쪽. 저자는 마오쩌둥의 군사사상의 철학이 서구의 변증법과 근본이 다른 중국 병가의 변증법과 들어맞는 것으로 이는 인식론이며 실천론이기도 하다고 보면서, 마오쩌둥이 철학적 인식론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직접경험(親知)'와 '지식과 행동의 통일(知行合一)'이라고 하였다.
 16) 온창일 외, 앞의 책, 2006, 281쪽. 중국 공산당은 1947년 12월에 이를 선포했다.

<표 3> 중국군의 10대 군사원칙

핵심 교리	주요 내용
피실격허	분산, 고립된 적을 먼저 공격하고, 강력한 적은 나중에 공격
점보다 먼 선취	중·소 도시 및 광대한 농촌을 먼저 점령, 그 후에 대도시 점령
주력 섬멸	적 병력을 주요 목표로 삼음, 지역점령이나 탈취는 섬멸의 결과
전술적 포위	매 전투시 우세한 병력 집중, 포위한 뒤 놓치지 말고 전멸시킴
충분한 준비/계산	준비가 되지 않거나 승산이 없는 전투는 시행하지 말아야 함
전투기풍 강조	용감하게 전투를 수행하여야 하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
공격 중심주의	기동 중에 상대를 섬멸, 동시에 진지에 대한 공격전술 중시
상황에 따른 작전전개	도시 등 탈환시, 적이 약할 때 강력한 의지로 탈취, 중간일 때 주변의 거점을 점거한 뒤 상황고려, 강할 때 조건 조성까지 기다림
보급 부담경감, 장기전 대비	적의 포로나 노획한 무기로 보충, 아군의 보급기지는 전선
작전적 템포 유지	전역과 전역과의 틈을 잘 이용해 병력을 정비하고, 길게 휴식하여 적이 숨 돌릴 틈을 얻게 해서는 안 됨

출처 : 온창일 외, 『군사사상사』, 황금알, 2006, 281~282쪽.

견제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결전을 추구하여 양쯔강을 도하하고, 대만으로 국민당군을 밀어붙인 힘은 마오쩌둥을 비롯한 군사지도자들의 정확한 정세 판단에 따른 전략적 공세 시행과 전역 및 전술적인 군사력 운용시 융통성 있는 대응이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룬 결과였다.

중국 측의 공간사에서는 한국전쟁을 크게 중국군 참전 이전을 '朝鮮內戰'으로 그 이후를 '항미원조 전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참전 이후도 1951년 6월 10일을 기점으로 운동전과 진지전 시기로 나누어 기술한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운동전 시기는 시간적으로 거의 연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속 기간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역 구분 기간은

17) 박창희, 「중국의 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 모택동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1, 104~105쪽.

<표 4> 중국의 한국전쟁 운동전 시기 전역 구분

운동전 전역	기간	주요 전투지역	기존 전사	UN군 작전 및 전투
1차	50.10.25 ~ 11. 5	서부 : 온정 · 고양 · 운산 동부 : 황초령 · 부전령	1차 공세	초산-온정리 · 운산 · 개천 · 비호산, 원산 · 이원 상륙
2차	50.11.25 ~ 12.24	서부 : 박천 · 개천 · 구장 · 덕천 · 영원(12월 4일 종료) 동부 : 장진호 ~ 홍남 (12월 24일 종료)	2차 공세	크리스마스 공세, 서부 및 동부전선 철수작전
3차	50.12.31 ~ 51.1.8	38도선부터 37도선 지구	정월 (신정) 공세	1차 반격작전, Wolfhound · Thunderbolt · Roundup 작전 황성 · 평창 · 지평리
4차	1단계 51. 1.25 ~ 2.16	37도선부터 38도선 이남 지구	2월 공세	2차 반격작전, Killer · Ripper · Rugged-Dauntless
	2단계 51. 2.17 ~ 4.21	38도선 이남 및 이북 지구		서울 북방 · 사창리 지구 · 가평 전투
5차	1단계 51. 4.22 ~ 4.29	38도선부터 서울 이북 지구 (서부)	1차 · 2차 준계 공방전	현리 · 오마치 · 홍천 · 용문산
	2단계 51. 5.16 ~ 5.21	38도선부터 황성 이북 지구 (동부)		반격작전
	전이 단계 51. 5.23 ~ 6.10	38도선 이남 및 이북 지구		

자신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공세를 실시한 전역에서는 기간이 짧고, 공간을 내주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⁸⁾ 전역 기간만으로도 중국군이 주도적으로 공세를 이끌 수 있는 기간

18) 실제 운동전 시기 공격 지속 기간을 중국측 공간사에서 확인해 보면 5일에서 12일 사이였다.

이 극히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쟁 초기 불확실성 속에서 전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중국측 전쟁지휘부는 전황을 고려, 신축성 있게 작전을 단계화하여 무모한 공격을 예방할 수 있었다.²⁰⁾

3. 1차 및 2차 전역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

중국의 참전 원인과 목적은 많은 논쟁점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냉전 시기에 중국군의 참전원인이 주로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국제적 안보위협 제거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본다. 당시 마오쩌둥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가 안보였으며, 소련의 지원에 의해 장비와 공군력 차이만 줄어든다면 국군은 물론 미군과도 맞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²¹⁾ 참전의 결정 명분은 '抗美援朝, 保家爲國'의 참전구호로 압축되는데 핵심적인 목적은 미국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었지만, 전쟁의 명분은 조선을 돕고 중국과 신생정권을 보위하는 것으로 포장되었다. 즉 중국 지휘부의 참전결정은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자'의 선택이었다.²²⁾ 중국군은 전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투입 부대의 편성 및 배치를 면밀하게 준비하였다. 지도부는 7월 8일 '동북 변방군'으로 13병단 4개 군의 편성을 지시하였고, 8월 중순 이후 낙동강 전선에 교착되자 1개 군을 더 추가시키

19) 주도권이란 전장에서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한국전쟁 기간중 중국군은 제공권의 부재와 화력의 열세라는 객관적 전력의 차이로 진정한 의미의 주도권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공격에 따른 제한적 주도권 확보만이 가능하였다.

20) 석영준, 「작전한계점 고찰: 6·25전쟁 전례분석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20, 육군본부, 2004, 318쪽.

21) 바르바라 바르누앙 · 위창건, 유상철 역, 『저우언라이 평전』, 베리타스북스, 2007, 174쪽.

22)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763쪽.

는 한편 2선과 3선 부대를 조직하여 9병단과 19병단도 전략 기동부대로 대비하였다.²³⁾

중국의 한국전쟁 수행 군사전략과 전술은 급박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당군과 치열한 전쟁 끝에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물이며 세계 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강점과 약점을 따져서 얻어낸 작전 지침이었다. 한반도 참전의 총사령관은 마오쩌둥과 대장정을 함께 했고 신뢰가 두터운 서북군구 사령관 평더화이(彭德懷)가, 13병단 사령관은 작전경험이 풍부한 덩화(鄧華)가 맡았다. 중국 전쟁지휘부는 UN군측의 기동은 지형에 의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고 묘향산과 낭림산을 배후에 두는 배치를 선택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지형적으로 낭림산맥과 개마고원에 의해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상호간 횡적 교통로가 제한되어 있다. 후일 백선엽 장군은 UN군의 북진 작전시 맥아더 UN군 사령관이 시행한 미 8군과 미 10군단의 분리 지휘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진격 상황과 신기할 정도로 흡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²⁴⁾

중국의 군사전략은 전쟁경험이 풍부한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융통성이 있었다. 중국측 지도부는 최초 설정한 평양-원산선 이북 지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UN군의 진격 상황에 근거하여 청천강 이북 낭림산맥 일대 주요 거점을 위주로 최초 방어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²⁵⁾ 즉 마오쩌둥의 지구전 전략에 의해서 1단계인 전략적 방어 단계로 판단하고 UN측이 공격하지 않으면 방어하고 근거지만 구축하려던 계획을 조기에 변경하여 1차 전역부터 전략적 대치 단계로 신속하게 전환하였다. 그리고 중국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UN군과 접촉을 끊고 충분히

23)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2002, 111~114쪽. 2선과 3선 부대 배치는 사전 대비이자 중대한 전략적 결정으로 언급함.

24)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2, 137쪽.

25)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19~21쪽.

기다린 후 2차 전역시에는 지구전 전략 3단계인 전략적 공세 단계로 나아갔다.

중국군이 극도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은 '10대 군사원칙'의 첫 번째인 '避實格虛'를 추구한 결과였다. 1차 전역의 전개과정을 잘 살펴보면, 중국군측은 상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적시에 신속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오쩌둥과 지원군 지휘부 간의 새벽에 주고받는 전문²⁶⁾을 통해 확인되는 활발한 의사소통은 오랜 전쟁과 이에 따른 작전지휘로 단련된 군사전통을 잘 대변한다. 또한 중국군 지휘부는 철저한 '知彼知己'에 따른 전략 운용의 성공으로 초반에 전장 주도권을 성공적으로 장악하였다. 이것은 중국군 내부에 남아있던 막연한 두려움을 깨고, 자신감을 고양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작전 진행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무모한 전과확대를 지양하여 2차 전역에서도 병력 규모와 전개지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1차 전역의 승리는 제한되지만 나름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중국군의 전략과 전술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군은 야간 작전과 근접 전투를 위한 시간 선택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즉 매 전역의 대규모 전투는 황혼 무렵을 기해 시작되었고, 당일 밤 일출 전까지 대규모 포위와 섬멸을 추진하였다. 즉 지휘부는 UN군의 제공권 장악과 화력에 있어서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는 야간 작전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십분 활용하였다. 또한 1차와 2차 전역 개시일이 만월인 날이었던 것으로 볼 때,²⁷⁾ 야간 공격을 위해서 월광도도 나름의 고려 요소가 되었다.

26)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한국전쟁과 중국 2』, 2002, 47~48:68~70쪽. 1차 전역 중 심야 및 새벽에 주고받은 전문은 총 7회가 확인되는데 이는 10월 26일 02·04·05시, 11월 2일 02시, 5일 01·02·03시로 공통적으로 전투가 전개되거나 본격화 또는 마무리되는 핵심적인 날짜와 시간에 해당된다.

27) 통상 만월시에는 방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부분적 기습 공격이었던 1차 전역(10월 25일은 음력 9월 15일)과 방어중 반격작전이었던 2차 전역(11월 25일은 10월 16일)에서 만월이

중국군은 전략적으로 외선작전을 추구하면서도 전술적으로는 각개로 분할하여 섬멸하는 내선작전을 시행하였다. 또한 과거 국민당군의 공산군 토벌작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도출한 교훈인 적극방어 전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상대를 끌어들이고, 병력을 집중하여 주력의 섬멸을 시도하였다. 2차 전역에서는 중국 군사전통과 경험의 종합교훈인 '10대 군사원칙'에 부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군의 전략이 평양 점령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점보다 면을 선취하려 하였으며 전략적 포위를 통해 주력 격멸을 시도한 것이었다. 또한 중국군은 충분한 준비와 계산 하에 상황에 따른 작전전개로 신속한 전과확대를 도모하지 않고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휴식과 정비에 임하였다. 최초 참전시 중국군의 장비 부족으로 전투력 발휘를 의심하던 소련군도 중국군의 작전을 관찰한 이후에는 중국군이 산악지형에서도 능숙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전투를 위해 야간과 악천후를 잘 활용한다고 평가하였다.²⁸⁾

2차 전역의 전략을 분석해보면 비정상적이고 비대칭적인 전투 시간, 형태, 방법을 적절하게 채택, 운용하여 중국군은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전장에서의 승리를 쟁취하려 하였다.²⁹⁾ 주간 전투를 극히 제한한 채 당일 밤에 진행되는 야간 전투를 통하여 국군 부대를 붕괴시키려 하였으며, 많은 병력을 투입하면서도 병력의 일부를 측방과 후방으로 침투시키고 화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3면, 4면에서 포위하여 방어의 균형을 파괴하려 하였다. 2차 전역을 통해 전체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여 미군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9병단의 적시 투입으로 우세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또한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하였는데 전역 우회시에는 정면부대의 전술적 분할포위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적의 도주를 막아야 병력

라는 점은 야간전투를 계획한 중국군측에 유리하였다.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소련군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2001, 223쪽.

29)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집문당, 2002, 852쪽.

과 화력을 집중해 당일 밤에 섬멸할 수 있다는 것과 후방보급의 보장이 전역규모와 지속시간, 전역 결심과 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³⁰⁾ 중국의 공간사 기록을 비판적으로 보면 특히 동부전선에서는 준비부족으로 동상 및 기아에 의한 병력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9병단은 11월 말부터 보름간의 전투를 벌여 미 7사단과 해병1사단을 전술적으로 포위 공격하여 큰 타격을 가하고 해상으로 철수시켰지만 혹독한 추위와 미 해병대의 화력과 공군력을 동원한 반격에 의해 막대한 타격을 입고³¹⁾ 5차 전역까지 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동계의 혹한은 준비가 미흡한 양쪽에 모두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기계화되지 않고 제공권과 수단이 없어서 공중보급이 불가능하고, 노출을 이유로 불을 피우지 못한 중국측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군 사령관인 펑더화이는 지휘소의 지도에 뻑뻑하게 부대 표시 막대기를 쫓아 놓고 작전지휘를 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지휘를 강조하여 중국군 사령부가 전선에서 멀리 이탈되어 설치되는 것을 거부하고 전방으로 이동하려 하였고, 전방 군급 부대의 작전을 위해서는 사령부의 부사령관급 인사가 내려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쟁의 본질적인 특성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원하는 장소에서 익숙한 방법으로 싸워서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1차와 2차 전역시 중국군의 목적과 수단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부 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항미원조전사』, 세경사, 1991, 70~73쪽.

3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앞의 책, 2002, 100쪽. '지원군의 병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의견(1950년 12월 17일)' 이 전문에서는 추운 날씨, 보급의 결핍, 격렬한 전투 등으로 4만여 명의 병사가 줄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5> 1차 및 2차 전역시 목적과 수단

구 분	목적 / 목표	수 단
전 쟁	북한정권의 생존	한반도 완충공간 확보 1차 : 청천강 이북, 2차 : 평원선 이북
군사전략	주력 섬멸로 퇴각 강요	국군에 공격 집중, 대규모 전역 우회를 통한 포위
전 술	대규모 전투에서 승리	중국군 전투력

이러한 중국군 군사전략과 전술의 수행 양상을 바탕으로 1장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해보면 1차와 2차 전역에서는 수단을 고려한 신중한 목적의 설정과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수단의 제공으로 둘 사이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측의 목표 초과달성의 근본적인 이유는 UN군 전쟁 지휘부의 오판과 무분별한 복진 작전, 동·서로 양분하여 기동로 중심의 전력 운용 등이었다. 1·2차 전역을 종합해서 볼 때, 중국군은 화력에서는 열세였지만 속도와 집중의 힘을 잘 이용하여 전략적 포위와 전술적인 포위를 적극 활용하였다. 소련군 군사고문단의 평가에 의하면 2제대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병력 및 장비는 전선에 균등하게 분배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련군의 전술 운용과 다르게 기습에 의한 돌파와 퇴로 차단 전술이 중국군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³²⁾

중국군 전술의 특징은 첫째, 철저한 기만과 기습을 활용이었다. 특히 철저한 언론통제³³⁾ 및 정규군 참전 부인과 같은 전략적인 기만뿐 아니라 위장과 은폐의 강화로 전술적으로 기만하였으며, 원하는 지점에 병력의 전술적인 집중을 통해 단시간 내에 균형을 파괴할 수 있었다. 둘째, 속도의 중

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앞의 책, 2001, 212~216쪽.

33)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앞의 책, 2002, 68쪽. '당장은 연합사령부 명의로 전쟁상황을 발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에 관한 전보(1950년 11월 5일 2시)'

시였다. 지휘부는 우수한 부대에 접적을 회피하면서 무선 침묵하에 과감하고 신속한 돌파와 우회를 감행하여 원하는 목적지를 장악하도록 명령하였다. UN군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 집결하여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하는 전술은 전선을 조기에 붕괴시켰다. 셋째, UN군 부대의 전술적 격멸과 중요 지역의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 점이다. 중국군은 1·2차 전역을 통하여 중심 기동과 퇴로 차단을 통해서 주요 부대를 포위할 수 있었고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였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황혼부터 여명까지의 당일 야간 시간과 근접전투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³⁴⁾

중국군의 주력부대는 휴식을 하는 가운데 각 1개 師씩 평양을 향해서 3개 기동로로 나누어 진격하였는데 평양 우측방인 성천³⁵⁾ 지역을 장악하여 압박하자 UN군은 평양을 포기하고 다시 38도선에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1차와 2차 전역은 한국전쟁 전체 국면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온 시기로 전쟁에서 無智는 피를 요구한다는 보편적 교훈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화력과 병력의 우열보다는 효과적인 군사전략과 전술을 통한 전쟁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특히 2차 전역은 적의 능력을 경시하고, 작전환경을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해 감행하는 작전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³⁶⁾

34)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앞의 책, 2002, 66~67쪽. '평터화이가 군사위원회에 보낸 전문(1950년 12월 4일 18시)'

35) 노영구,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내지 거점방어체계」, 『한국문화』 34, 2004, 254쪽. 성천 지역은 대동강 상류에 해당하며 평양에 이르는 대로인 동로와 서로를 거치지 않고 측방에서 평양을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내륙 교통로상의 요지이다. 조선 영조대 평양의 방어 체계를 완비한 이후 제일 먼저 성천 지역이 정비되는데, 이는 영변에서 이어지는 내륙 간로의 핵심지역이라는 점과 '이괄의 난' 때 반란군이 이 길을 이용하여 평양을 거치지 않고 한성으로 남하한 점이 고려된 결과였다.

36)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편,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 2004, 257쪽.

4. 3차 전역 이후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

지도자 마오쩌둥을 비롯한 전쟁 지휘부는 물리적으로 강한 UN군을 상대로 효과적인 전략 지침과 전술 운용을 통해서 확고한 국가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초기에 열세한 전력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3차 전역 이후부터는 주력 격멸 실패와 무리한 결전의 추구로 전쟁 전의 원상회복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³⁷⁾

중국군은 3차 전역에서도 1차와 2차 전역에 이어 병력집중을 통한 섬멸전, 속결전, 운동전을 추구하고였으며, 전 전선에 걸쳐 주요 기동로에 우세한 병력과 보유한 화력을 집중하여 공격하였다. 또한 중국 지휘부는 정치적 의미의 38도선 돌파를 중시하면서도 전투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작전을 전개하여 서울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중국군이 북한군과 통일된 지휘 하에 진행한 첫 번째 작전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³⁸⁾ 특히 3차 전역을 시행하기 전에 오래 휴식하여 적이 숨 돌릴 틈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규모의 신정공세로써 작전적 템포를 유지해 나갔다.

3차 전역시 중국 지휘부는 전선 전방에 위치한 국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 및 화력을 집중해서 우선 돌파구를 개척하고 돌파 후에는 분할포위를 진행하면서 중심을 향해 진격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⁹⁾ 하지만 3차 전역은 지구전 전략의 3단계인 전략적 공세 단계의 최고조기로 38도선을 붕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UN군 주력의 충분한 섬멸에 실패하여 이후 전략적 공세의 지속이 어려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군은 추

37) 박창희, 앞의 논문, 2001, 258~261쪽.

38)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2005, 291쪽.

3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부 편, 앞의 책, 1991, 86쪽.

가적인 전투부대의 투입 없이 9병단의 공백을 북한군 전력으로 대체하면서 최초 기습남침과 유사한 공격을 개시하였지만 축차적인 방어를 준비하고 있던 UN군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돌파구 형성이나 청천강에서와 같이 도미노식 붕괴만은 막을 수 있었다. 중국 지휘부는 전쟁의 목적에 있어서 심리적, 정치적 저항선인 38도선의 무력화를 통해 북한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한반도 완충공간 공고화를 통해 전황의 전면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군은 주력 부대의 공격을 위한 기동로 선택시 대도시를 우회하면서도 주요 접근로를 장악하고, 대도시에 대규모 부대를 주둔시키지 않으면서 신속한 전략적 포위를 중요시하였다. 특히 중국군은 전쟁기간 내내 대규모 상륙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면서⁴⁰⁾ 일부 병력을 배치하여 대비하였고, 보급차단의 영향을 덜 받는 한반도 내륙의 기동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3차 전역의 특징은 기존의 기습에 의한 효과는 줄어들고 미리 준비된 방어선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것이지만 중국군은 전략적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상륙능력, 제공권을 가진 UN군을 완전히 격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차 전역에서의 목적과 수단은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3차 전역시 목적과 수단

구 분	목적 / 목표	수 단
전 쟁	한반도 완충공간 확장	38도선 무력화
군사전략	UN군의 중심 깊은 방어선 고착 거부	작전적 템포 유지, 상황에 따른 작전전개
전 술	전투에서 승리, 주력 섬멸	중국군 전투력

40)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2005, 492쪽. 5차 전역이 시작될 무렵인 4월 26일 전보에서 평터화이는 상륙예정 지역으로 동해안은 통천, 원산, 홍남을, 서해안은 남포, 안주, 정주를 들었다.

1장에서 제시한 가설인 “중국군 지휘부는 운동전 시기에 전쟁 목적과 수단의 조화를 추구하였다”를 검증해 보면 우선 중국군은 전술적인 목표달성이 완전하지 않았다. 3차 전역은 중국군이 계획한 전략적 공세의 최고 정점이었지만, 38도선 돌파라는 정치적 필요와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 사이에 모순이 출현할 때 중국군 지휘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절충하고 조정하는가를 확인하는 시험무대였다.⁴¹⁾ 이에 따라 UN군의 축차적인 후퇴와 37도선에 연하는 지역에 방어선 고착을 막지 못하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목적과 수단의 완전한 조화는 이루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후 중국군은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대규모 작전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지역을 양보하고 시간을 벌면서 소규모전과 누적만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중국측 공간사에서 4차 전역은 참전 이래 규모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 방어 작전이었으며, 휴전 협상 개시 이후에 전개된 진지전 단계의 고수 방어 작전 지도를 위한 본보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⁴²⁾ 중국군은 UN군의 점진적인 북진작전에 맞서 UN군 병력을 섬멸하고 대전-안동선 점령을 목표로 4차 전역을 개시하여 황성지구에서는 큰 피해를 주었지만 지평리 전투에서 UN군을 경시하고 충분한 준비와 집중을 하지 못한 성급한 공격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운동방어로 전환하여 전체 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중국군은 UN군에 맞서 고정방어보다는 운동방어가 효과적이며, 38도선 돌파에 의해서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어렵고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⁴³⁾ 4차 전역에서 중국군의 군사전략은 탐색 공격을 감행하는 UN군에 맞서서 국지적인 돌파구 형성과 전과 확대를 통해서 방어선을 붕괴시키는 것이었지만 성공할 수 없었고 수동적

41) 뉴전, 노동환 외 역, 『중국군의 38도선 남진 배경』, 『그들이 본 한국전쟁 1: 항미원조-중국인민지원군』, 눈빛, 2005, 28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495쪽.

42)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2005, 411쪽.

43) 홍학지, 홍인표 역,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1992, 207쪽.

인 상태에서 축차적인 방어로 2단계 작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4차 전역은 UN군의 우세하고 강력한 화력과 공군을 이용한 공격이 위협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역이었고, 중국군은 군사적 수단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중국과 달리 기동공간이 제한된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중국군은 이어진 5차 전역 1단계 작전에서 운번제로 투입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⁴⁴⁾ 공격을 전개하였지만 수도 서울을 신속히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2단계 작전에서는 돌파와 우회를 배합한 공격으로 동부전선에서 대규모 돌파구를 형성하였지만 2차 전역과 같은 전과확대에 이르지 못하였고 UN군의 확장 저지와 신속한 전력 투입으로 봉쇄당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측이 반격을 당하게 되어 개전 이후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된다.⁴⁵⁾

4차와 5차 전역부터 중국군은 목표한 축선에 개별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대규모 작전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마오쩌둥은 전문을 통해 미군과의 전투에서 ‘마치 끈적거리는 옛을 물어뜯는’ 것처럼 한 단계씩 전진하는 전술을 택하라고 지시하였고,⁴⁶⁾ 전쟁 초반과 같이 포위를 통한 UN군 주력의 후퇴는 불가능하며 확고한 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군은 제공권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른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해답은 전선에 연하는 고지 일대에 갱도를 파서 병력의 보존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것이었다.

44)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앞의 책, 2002, 117~118쪽. ‘마오쩌둥: 조선에서의 전황과 중국이 순환식 작전방침을 채택한 것에 관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1951년 3월 1일)’

45)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앞의 책, 2002, 123쪽. ‘적군을 저지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는 계획에 동의하면서 평더화이에게 보낸 전보(1951년 5월 31일)’

46)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편, 앞의 책, 2002, 122쪽. ‘미군과 영국군에게는 몇 개월 동안 소규모의 섬멸전만 진행할 것(1951년 5월 26일)’; 공군본부 편, 『중국군 장군들의 한국전쟁 회고』, 2004, 116쪽; Xiaobing Li, Allan R Millet and Bin Yu trans. and eds., *Mao's generals remember Korea*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p. 36. 평더화이의 회고 중에서 인용함.

중국군은 공세적인 전투에서는 포위, 우회 등의 전술을 계속 이용하였지만 UN군이 강력한 화력으로 견고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공격을 전개하자 운동방어로 전환하여 진지를 고수하면서 소규모 전투에서의 작은 단위 부대에 대한 승리의 누적으로 전술적 목표를 변경하였다. 중국군은 이를 기반으로 윤번제에 의해 신규로 투입된 부대를 이용한 국지적인 대규모 공세와 운동방어를 수단으로 UN군의 새로운 방어선 구축과 전진을 거부하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지적인 돌파구 형성에 의한 전선 붕괴를 시킬 수 없었고 UN군측의 상륙작전 미실시로 평양-원산선 이남의 완충공간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38도선 이남의 완충공간 확장은 고사하고 운동방어를 통해 점령지역을 유지할 수조차 없었다. 중국군이 시행한 운동전의 마지막 기간 중 중국군의 목적과 수단의 상호작용은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장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해 보면 중국군은 가장 기초가 되는 전술부대에서부터 주도권 유지가 어려워 전투에서 승리를 누적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신규 부대가 투입되지만 전략적 기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우회와 돌파를 통한 UN군 방어선의 붕괴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였다. 운동전 시기 중국군의 군사전략과 전술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표 7> 4차 및 5차 전역시 목적과 수단

구 분	목적 / 목표	수 단
전 쟁	한반도 완충공간 확장 및 유지	국지적 돌파구 형성으로 전선붕괴
군사전략	UN군 신방어선 구축과 전진 거부	신규 부대 투입, 국지적 공세와 운동 방어
전 술	축차적 진지 고수,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 누적	중국군 전투력

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목적을 수단에 상응하게 하는 것이라는 교훈이다.⁴⁷⁾ 중국군은 전쟁,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수단을 넘어서는 목적을 추구하여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전체 운동전 시기 중국군은 전략의 융통성 있는 적용과 효과적인 병력운용을 통해서 나름의 전쟁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융통성을 가지고 정책, 전략, 전술의 목적과 수단의 조화를 추구하였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 나름의 한계도 많이 보였는데 그것은 3차 전역 이후로 보이는 수단보다는 목적을 먼저 고려하고, 완충공간의 유지를 위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군은 작전 주도권의 장악에 따른 주동적 위치에서 전쟁을 진행하고자 하는 전략의 주안점은 변함이 없으나, 4차와 5차 전역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작전운용으로도 주도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에 UN군은 화력의 우세와 제공권의 완전 장악이라는 근본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선 붕괴를 막아내고 전력 보존에도 성공하였다.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적용으로 중국군이 성공적으로 북한 정권을 생존시킨 것과 같이 UN군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공적으로 중국군의 추가적인 남진과 전선붕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었다. 이상의 논의를 과거 전쟁에서 도출한 교훈인 적극방어전술과 10대 군사원칙에 따라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중국의 혁명전쟁 수행 전략의 특징과 현실전쟁 성격의 한국전쟁 수행 전략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마오쩌둥은 최초로 설정한 제한된 목표 대신에 UN군의 한반도 축출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둘째, 중국군이 2차 전역 이후 공격의 정점에 도달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적의 중심을 병력이 아닌 도시로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넷째, 화력과 기동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⁴⁸⁾ 중국이 계획한

47) 바실 리델 하트, 주은식 역, 『전략론』, 책세상, 1999, 472쪽. 20세기의 클라우제비츠라는 찬사를 받는 리델하트의 저서 『전략론(Stratagy)』에서 전사에서 얻은 금언을 간추려 8가지로 정리하였는데 목적을 수단에 상응하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표 8> 적극방어 전술과 10대 군사원칙의 전술적 적용

전술	세부 내용	적용 전역	평가
적극 방어 전술	유적심입	1·2차 전역	퇴각후 기습 성공
	병력집중	전체 전역	집중 성공, 각개 섬멸 제한
	섬멸전	1·2·3차 전역	주력의 섬멸 실패
	속결전	전체 전역	7~10일내 종료
	기동전	1·2·3차 전역	초기 전역에서 주도권 유지
10대 군사원칙	피실격허	전체 전역	국군 우선 공격
	점보다 면 선취	2차 전역	평양 점령에 집착하지 않음
	주력 격멸	2·3차 전역	전략적 포위로 격멸 시도
	전술적 포위	전체 전역	화력과 계공권으로 제한
	충분한 준비/계산	1·2차 전역	3차 전역부터 급속한 전투 추구
	전투기풍 강조	전체 전역	정신무장 강조
	공격 중심주의	전체 전역	전술적 공세 유지
	상황에 따른 작전전개	2·3차 전역	평양·서울 점령시 성공적 적용
	보급 부담경감, 장기전 대비	전체 전역	차량·장비 이용, 북한측 식량 지원
작전적 템포 유지	2~3차 전역 사이	신속한 38도와 추구로 유지 못함	

전쟁 목표의 달성이 자신들의 전통과 저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역의 성공에 도취되어 점차 절대전쟁 성격으로 전쟁을 인식하고 낙관주의에 빠져 들었던 전쟁수행의 결함은 뚜렷하게 확인된다. 전쟁에서 무지와 오판의 대가는 결국 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한국전쟁 운동전 시기를 종합하여 볼 때 커다란 전술상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전체 전역에 있어서 중국군의 병력 비율은 월등하게 앞서지 않지만 전술적인 상황에서는 3배나 5배까지의 병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고, 섬멸전, 속결전, 기동전은 일관된 전술적 원칙으로 적용된 것이 전

48) 박창희, 앞의 논문, 2001, 258~262쪽.

술 제대의 전투수행에서 드러난다. 다만 중국군의 전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섬멸전과 기동전은 그 수행에 제한을 받았다. 10대 군사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피실격허, 전술적 포위, 전투기풍 강조, 공격 중심주의, 보급 부담 경감과 장기전에 대한 대비는 모든 전역에서 강조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전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국군 지휘부와 전술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 대부분이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경험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술은 지휘관의 판단과 재량에 의해서 강조되고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지라도 단기간내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전쟁사의 보편적인 현상이 한국전쟁의 중국군 운동전 시기에도 똑같이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윤번제로 신규 투입된 부대는 식량과 탄약의 비축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술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지형과 UN군 정보에 대해서도 미숙하였다.⁴⁹⁾ 특히 5차 전역 1단계 작전에서 미군을 상대로는 효과적으로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자, 수세에 처하지 않기 위해 병력을 동진하여 국군 부대를 상대로 1차와 2차 전역에서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돌격과 다층 우회포위를 하여 대량 섬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은 더 이상의 대규모 전과확대가 어려웠으며 강력한 반격에 유기적인 전술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작전적인 한계와 지속적인 피해의 누적으로 1951년 여름 이후 전장의 주도권을 거의 상실하였으며, 고지 쟁탈전과 휴전회담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라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부분적 집중 공세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술은 이론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술 적용에 있어서 UN군과 중국군은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싸우고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면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나 수세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쉽게 패하지 않는 공통된 모습을 보였다. 즉 전술 측면에서 경험 요소는 더 크게 작용하였고 중국군에게는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군대와 싸운 경험은 긍정적인 요

49) 중국인민해방군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2005, 500~501쪽.

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전투를 계속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한국전쟁에서도 UN군은 거듭 전투를 치루면서 야간전투와 근접전투로 대표되는 중국군 전술을 예측하기 쉬워졌고, 중국군의 움직임과 짧은 공세 지속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간파하게 되었다. 중국군의 전술운동은 술한 전쟁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면 상호간의 전투방식에 빠른 시간 내 적응하게 되며, 적이 전술형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일한 방식의 전투를 고집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술 적용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5. 결 론

중국 공산세력에게 한국전쟁은 자국 군대가 국외에 참전한 최초의 사례로 혁명전쟁을 막 끝내고 국제전 전략을 형성하는 시기에 닥친 큰 위기였다. 중국군의 핵심적인 전쟁 목적은 북한 정권 생존을 통한 완충공간의 확보였으며, 핵심적인 전쟁 수단은 나뭇의 군사적 전통과 강자와의 연이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진 대규모 전투 부대였다. 또한 중국군은 전쟁의 주도권 장악과 완충공간 확보라는 전쟁의 큰 목적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전략과 전술 수준의 목적과 수단은 유연한 입장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지휘부는 병력의 투입과 장비의 보강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때까지 기다리는 융통성을 보이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중국군의 궁극적인 대응 수단의 부재로 1951년부터 전개된 치밀한 UN군의 반격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중국군의 전략과 전술은 전쟁의 본질을 설파한 손자 이래의 오랜 전통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중국군은 이를

실사구시의 방법으로 소화시켜서 패배하지 않는 전쟁을 추구하였다. 마오쩌둥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면서도 작전 결과에 대해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였다. 따라서 중국군의 전쟁방식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오쩌둥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전략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판단하에 도출된 현실적인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⁰⁾ 중국군은 1·2차 전역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 가운데 속도와 기습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군 사단이라는 뚜렷한 목표로 집중하여 공격하였고, 전략·전술적 포위를 통해 조기에 주력을 제압하는 시도로 발전시켰다. 3차 전역에서는 38도선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두고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여 공격을 시작하였지만 37도선 이남까지는 전과확대를 추구하지 않았다. 4차와 5차 전역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제 능력을 고려한 최선의 방안이 진지전임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다. 중국군의 한국전쟁 운동전 시기를 종합하여 볼 때 전술적인 측면의 뚜렷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군 지휘부는 운동전 시기에 전쟁 목적과 수단의 조화를 추구하였다”라는 가설을 통해 군사전략과 전술의 변화양상을 고찰하였다. 전체 운동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이 가설은 1차와 2차 전역에서는 목적의 설정과 충분한 수단의 제공에 있어서 성공적인 조화가 이루어졌지만, 3차 전역에서는 전술적인 목표인 주력 섬멸이 완전하지 못하여 전략적인 성공에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4차와 5차 전역에서는 전술 부대에서 전투 상황에서의 주도권 유지가 원활하지 못하여 전술적인 승리의 누적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규모 신규 부대 투입으로도 UN군의 방어선을 붕괴시키지 못하고 전쟁,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수단을 넘어서는 목적을 추구하여 둘 사이의 조화에 실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중국군은 실질적 군사력이라는 수단에 부합하는 목적을 추구하여 초기 국면에서는 나뭇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술적 목표

50) 박창희, 앞의 논문, 2001, 265쪽.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전술적 승리가 전략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여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중국군은 운동전 시기 전쟁 목적과 수단 사이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후 중국군이 진지전 시기로 규정한 휴전회담기에는 군사전략적인 수단의 확보를 위해 제한된 제공권 확보, 화력의 보강, 광범위한 진지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완충공간 유지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규정한 진지전을 떠나가면서 UN군 유생역량의 점진적 소멸로 휴전협상에 의한 전쟁전의 원상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조사의 부족과 충분한 연구 성과 반영의 부족으로 중국군의 전략과 전술에 관해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점이 많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군사사 연구자에게 다양한 전쟁의 국면을 보여주면서도 국제전이 될 미래의 전쟁에 대한 답을 제시해줄 숨어있는 보고라는 것을 다 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정전체제가 형성된 이후 두 세대가 지났다. 참다운 '전략'을 구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원고투고일 : 2008. 3. 20, 심사수정일 : 2008. 6. 4, 게재확정일 : 2008. 6. 16)

주제어 : 군사전략, 전술, 완충지대, 기동성의 우세, 기습공격, 모택동, 목표와 수단의 조화, 전역, 중국군

<ABSTRACT>

A Study on Change of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Strategy and Tactics in the Early Korean War

Oh, Jeong-taek

The Korean War was a serious crisis to the Chinese Communists Forces (CCF) as the first case of their forces' intervention in a war abroad at that time when they had just finished a revolutionary war and started to form the strategy for international war. In this study, the key purpose of the CCF in a war was to secure a buffer zone through survival of the North Korea Regime, the key means was a large scale of combat unit which had its kind of military tradition and an experience of winning a series of war against the strong. Furthermore the CCF kept consistently the big purpose of holding the leadership of a war and securing a buffer zone, and also a purpose and means of strategy and tactics level had been changed smoothly by their own condition. The CCF was adaptable to wait for the moment when definitely advantageous situation was developed also in committing troops and strengthening equipments, and it decided fluidly by condition. However, the CCF could not overcome elaborate counterattack by the UN Forces that had been developed since 1951 owing to the absence of their ultimate counter-plan.

Strategy and tactics of the CCF was much influenced by the time-honored tradition since Sūnzi expressed clearly the nature of a war, Clausewitz' *On War*, and so on, and they pursued a never-losing war by digesting this with the method of *shíshì qiūshì*. While *Mao Tse-tung*

assumed even the worst situation, he encountered adaptable the result of military operation. The CCF held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1st and 2nd Campaigns, they attacked with concentrating on apparent goal, that was they were a national division, based on superiority of speed and sudden attack, and they developed the way how they controled the main forces early on a war by strategical and tactical siege. In the 3rd Campaign, they began to attack for the political purpose first, with considering the 38th Parallel as psychological line of resistance, but they didn't pursue the improvement of fruits of battle down to the south of the 37th Parallel. In the 4th and 5th Campaigns, they confirmed their limit, and they made an opportunity to confirm position operations as the best plan by considering their own real ability. After considering all factors of the period before the CCF operated in the Korean War, there was no apparent change on tactical side.

In this study, it considered change of military strategy and tactics with th following hypothesis, "the CCF pursued the harmony of purpose and means in a war before their operated." As examined through the period before the whole operation, this hypothesis was harmonized successfully in setting up the purpose and providing sufficient means in the 1st and the 2nd Campaigns, but there was the limit on strategical success because tactical purpose, that was annihilation of the main forces were not complete in the 3rd Campaign. And in the 4th and 5th Campaigns, tactical units didn't keep the leadership without a hitch in battle situation, so they didn't accumulate sufficiently tactical victory, also they didn't collapse the UN Forces' line of defense even with committing a large scale of new unit, and they failed to harmonize purpose and means by pursuing the purpose beyond means on war, strategy, and tactical side. That is to say, the CCF produced its kind of fruit in the early Korean War with pursuing the purpose meeting means, that is substantial military strength, but they didn't overcome essential inferiority, blocked to achieve tactical goal, and

then a tactical victory failed to contribute as a means to achieve strategical purpose. Then the CCF spreaded position operations that they prescribed with pursuing the purpose of maintaining a buffer zone, and targeted on restoring the original state before the Korean War by the Truce Talks owing to gradual extinction of the UN Forces and military forces.

<p>Key Words : Military Strategy, Tactics, Buffer Zone, Superiority of Speed, Surprise Attack, <i>Mao Tse-tung</i>, Harmony of Purpose and Means, Campaign, Chinese Communist Forces(CCF)</p>
